『中國學』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10
pp.203-227. ISSN : 1229-9618

고대 중국의 가족 서사와 변화된 감정의 구조
- 당송(唐宋) 애도 시문에 나타난 가족 애도 방식을 중심으로

이수정*

【목 차】

1. 서론
2. 감정 통제의 결여: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3. 과거지향적 연민과 탄식: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대응
4. 습관적 무기력과 좌절: 정서적 불안과 정체된 삶
5. 결론

【초록】
본 논문은 애도의 글쓰기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가족 서사를 보장한다면 고대 문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내지 변화된 감정구조를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획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애도 문학 변천의 한 단면을 탐색하는 작업이면서 당시 공동체가 소유했던 가족에 대한 감정구조의 실태 및 변화의 흐름을 구축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고대 중국인들의 가족 서사는 탈관습의 성질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애도 시문은 죽음이 전제되는 면에서 그 고유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글쓰기 활동을 통해 가족에 대한 언급을 공식화한 시도는 가족 구성원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나름의 방식을 통해 공개하려던 당시 문인들의 진전된 감정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키워드】 가족 서사, 감정구조, 당송(唐宋), 애도, 죽음, 시문(詩文)

* 이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xiuzhen24@naver.com)

1. 서론

가족[1]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집단으로 구성원 간의 애착과 친밀감이 일정부분 보장된 공동체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인류 출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문명 발전의 흐름 속에서 파생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종교적 요소, 즉 정신문명의 근간이 되어온 특정 이념들이 가족 개념 및 제도 정립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고대 중국에서도 다양한 이념이 출현하여 특정 교리를 선전하는 사적(史的) 흐름 양상을 보인다.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가족 간의 강한 유대와 애착이라는 공통된 명목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보인다.

유(儒)·불(佛)·도(道)를 필두로 가족에 대한 개념과 제도가 나름의 체계를 갖추며 성립되었던 것과 달리, 이념의 직접적인 실행을 담당했던 고대 문인들의 가족, 특히 직계가족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제한적인 양상을 보인다. 가장 오래된 시가 선집인 『시경(詩經)』에는 가족을 주제로 하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훗날 서진(西晉) 반악(潘岳)의 <家風>, 동진(東晉) 도연명(陶淵明)의 <責子> 등처럼 자식에 대한 훈계 또는 권면을 전하는 시아시(示兒詩)[2] 부류의 작품이 출현하여 가족 서사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가족 간의 애정이나 사적인 일화의 언급보다는 자식 양육이라는 실용성에 집중되며 그 수도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 문인 사회에서 가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사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당시의 사회 구조를 반영한다.[3] 하지만 사적 일화를 담은

---

1) 본 논의에서는 '가족'을 작가와 혈연관계에 놓인 인물 및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한정한다.

2) 시아시(示兒詩)는 개인의 수양과 학습을 통해 천하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유가적 덕목을 실현하는 토대로 한대(漢代)부터 관련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 성행했던 당대(唐代)에 이르러 시의 정식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시아시는 유가적 교육사상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던 북송 시기에 구체화하였으며 남송에도 이상적인 교육방식의 전승을 목표로 한 시아시의 지속적인 창작이 이루어졌다. 시아시와 관련해서는 주기평, 「杜甫 示兒詩 研究 - 두보 자식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8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5와 주기평, 「唐宋 示兒詩에 나타난 중국 시인들의 자식교육」, 『중국어문학』, 제70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15 참조.

3) 가족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특정 이념이 중심이 된 사회, 이를테면 유가(儒家) 이념이 사회적 통념으로 작용했던 시대에서는 가족 역할 분담의 중요성 또는 인성교육 등의 지침을 선전하며 가족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족 서사가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애도의 주제를 서술하는 데 있어 공식적인 가족의 호출이 가능했다.

실제로 『시경』의 <二子乘舟>는 위나라 선공(宣公)의 두 아들인 급(伋)과 수(壽)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가족 서사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며 훗날 한(漢) 무제(武帝)가 아내를 애도한 <李夫人賦>, 조식(曹植)이 자녀를 애도한 <金瓤哀辭>, <行女哀辭> 등이 창작되었다. 그 여파로 서진 반악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悼亡詩>三首, <哀永逝文> 등에서 가족의 죽음을 대면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표현해내면서 일반 문인들의 가족 서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반악과 동시대 관료였던 왕준(王浚)도 반악처럼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華芳墓誌銘>을 지어 슬픔을 표하였다. 그러나 묘지라는 비공개적인 무덤 안에 매장하고 있어 아직은 가족의 공개 서사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문인들의 감정구조를 보여준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타난 애도 주제의 변천 과정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애도 서사의 구조적 틀을 형성해줌으로써 훗날 당송 애도 시문[4] 창작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면에서 주목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가족 서사와 애도 시문 간의 관련성 및 연구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한편 그 이면에 감춰진 가족에 대한 고대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보다 심층적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해보아야 할 여지를 남긴다.

여기서 감정 구조(Structure of Feeling)란 한 시대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감각[5]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의 문화이론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6]의 이론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같은 시대 아래 같은 감정구조를 공유하더라도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에게 있어 결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수용되거나 소유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감정구조는 하나의 문화권 하에 공존하는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

4) 본 논문에서 다룬 작품들을 애도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문 등 애제류(哀祭類) 산문으로 분류된 작품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미에서 '시문(詩文)'의 용어를 활용하였다.

5) 박은진, 「'감정구조' 중심의 문학사 교육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제4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p.26.

6) 레이먼드 윌리엄즈는 영국의 문화이론가로 노동 계급이 일궈놓은 문화 업적에 대한 평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았으며, 소위 문화 연구의 전통 속에서 문화주의로 분리되는 중요한 연구 영역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감정의 구조'는 그가 제시한 용어로, 그는 자신의 저서 『기나긴 혁명』을 통해 감정의 구조란 결국 한 시대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한 시대의 의사소통이 의존하는 기반이 바로 감정의 구조로서 새로운 세대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이 물려받은 독특한 세계에 대응하여, 추적할 수 있는 수많은 연속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따로따로 묘사될 수 있는 그 사회 조직의 많은 측면을 재생산하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다르게 느끼며 그들의 창조적인 반응을 새로운 감정의 구조로 형성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레이먼드 윌리엄즈, 설준규·송승철 옮김, 『문화사회학』, 까치, 1984. 레이먼드 윌리엄즈, 성은애 옮김,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제1부 2. 문화의 분석 참조.

소통의 매개로서 문학 창작을 통해 형성된 문화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감정구조라면, 그 변화의 지점을 살피는 일은 곧 인간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변화된 공동체의 문화상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가족 서사에 반영된 감정구조의 분석은 비단 문학 창작의 일면을 탐색하는 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가족이 어떤 문학적 형상 과정을 거치며 당시 사람들의 감정구조와 결부되어 있는지 파악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애도 시문에 나타난 가족 형상화 방식이 곧 고대 문인들의 가족에 대한 감정구조를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작품을 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고대의 가족 서사는 당대(唐代)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당대 이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애도 시문은 현전하는 작품 수가 많지 않았다.[7] 게다가 유가 이념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문인 사회에서는 가족의 위계와 역할이 강조되거나 불언내(不言內) 등의 이념 실현에 따라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지양과 동시에 유가 이념에 걸맞은 이상적인 가족 형태를 형상하는 데 주력하였다. 오랜 세월 가족은 사적인 영역에 속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에 따른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내용과 표현이 가족 서사의 핵심을 담당하면서 개성을 담보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곧 소극적·제한적인 가족에 대한 서사가 당시 문인들의 보편적인 감정구조에 기반하며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왔음을 의미했다.

중당(中唐) 안사의 난이 발발한 후로 가족에 대한 서사는 마침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기존에 비해 훨씬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으며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자 가족 서사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가족 서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그에 반영된 문인들의 감정 서사 방식도 기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관습성을 강하게 표방한 칭양(稱揚)과 애도의 순차적 서술 구조라던가 감정의 억압 또는 특정 이념에 걸맞은 여성상이나 인물상의 제시 및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상투적인 가족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당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송대에까지 이어지면서 지속해서 전진하는 구도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중당이 기점이 된 당송 애도 시문은 고대 문인들의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계로서 보다 주목해야 할 가

---

7) 그에 대한 예시로 逯钦立의 『先秦漢魏晉南北朝詩』에 수록된 애도시를 선별한 결과, 선진부터 수(隋)이전까지 창작된 애도시는 약 100수에 불과했다. 연작시를 포함하지 않은 작품 수이다. 각각 선진 3수, 한대 16수, 위진 30수, 남북조 46수, 수대 3수이다. 한대까지는 대체로 무명씨(無名氏)에 의한 작품이 전해지며, 위진 이후부터는 작가의 이름이 명시된 작품이 수록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당대(唐代) 이전까지는 애도시 창작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2.

치를 지닌다.

가족 서사의 확장은 문학 창작 변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문화 형성의 한 축을 이루는 당시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념 속 가족은 오랜 세월 애착과 친밀감이 보증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하여 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반응 또한 극심한 슬픔이라는 획일적인 차원으로 환원하는 데 그쳤으며 관련 논의도 상당히 소략한 실정이다.[8] 그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당송 애도 시문의 가족 애도 방식을 감정구조의 변화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그에 나타난 가족 서사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유가에서 통용되던 이념 중심으로 구축된 고대인들의 가족에 대한 감정 구조가 문학에서는 어떤 흐름의 구도를 통해 전진 되고 발전되어 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의 일단을 해명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감정 통제의 결여: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안사의 난으로 마비된 사회 전반 시스템이 미래지향적 포부를 내비쳤던 수많은 문인 집단의 의욕을 좌절시키면서 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생존 방식과 존재 가치의 구현을 위해 독자적 세력을 구축해야만 했다. 잦은 전란으로 지속된 암울한 사회상과 그로 인한 좌절감은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유되었고 문학 향유층의 증가에 따른 시문 주제의 확장은 내용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일상적이고 비주류적인 대상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작가의 개인적인 상황이 서정의 주체이자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따라서 중당 이후 창작된 시문의 서정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중당이 기점이 된 애도 시문도 혼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의 추세에 가담했다. 애도 대상이 주변 인물을 비롯하여 아내, 자녀, 첩 등 비주류적 인물로 확장되었

8) 현재 국내에 출간된 가족 관련 단행본을 살펴보면 대체로 근현대 전후(戰後) 문학에 나타난 가족 인식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젠더(gender) 문제, 가족 상담과 관계 회복 문제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족의 기원이나 역사를 다룬 단행본도 몇몇 출간되었으나 대부분 인류의 탄생과 사회 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동서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적 집단이자 가장 친숙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련 논의가 상당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문학계에서는 김용찬, 「사설시조 속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 - 고부(姑婦), 처첩(妻妾)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등과 같은 부류의 논문이 여러 차례 게재되고 있어, 문학과 가족 서사 간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며 표현적 측면에서 사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거나 칭양과 애도의 순차적 서사를 지향했던 관습적인 애도의 글쓰기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등[9] 나름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 가족에 대한 문인들의 변화된 관점은 표현 방식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다. 직계가족에 대한 애도의 문턱이 낮아지자 관습적으로 전해져온 애도의 글쓰기 방식[10]이 파괴되었으며 무엇보다 죽음을 대면한 애도 주체의 감정 표출이 우선시되자 논리성에 기반한 감정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주로 특별한 동기가 부여된 창작이 이루어지기보다 감정 기복에 근거한 글쓰기가 이행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쓴 작품을 반복적으로 창작하거나 슬픔을 나타내는 감정 시어를 높은 빈도로 활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정 중심적인 글쓰기 방식은 작가와 대상 간의 친소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11] 애도 대상이 가족일 경우 특히 자주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당송 애도 시문에 나타난 감정 통제의 결여는 탈관습의 실현에 기반한 의식적인 문학 장치의 하나이자 관습의 폭력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존 가족 서사의 해방을 의미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족 문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되었던 사실을 방증하며 나아가 변화된 문인들의 감정구조 일면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실제 창작 실태를 통해 살펴보자. 상술한 바와 같이 가족 서사에 나타난 감정 통제의 결여 양상은 고질적인 이념 속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기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특정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반복 창작되는 방식으로 해소된다.

---

9) 당대(唐代) 애도 시문 주제의 변천과 관련해서는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10)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 <誄碑>에서 뇌문(誄文)에 대해 "문장을 시작할 때는 망인의 행적에 대한 칭양을 서술하지만, 슬픔을 서술하는 것으로 끝맺어야 한다.(榮始而哀終)"라 하였고, <哀弔>에서 애사(哀辭)에 대해 "감정은 반드시 애통함과 만나야 하며, 문장은 눈물을 끌어내야만 한다.(必使情往會悲, 文來引泣.)"라 하며 애도 시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명시한 바 있다. 성기옥, 『文心雕龍』,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참조. 실제로 반악이 하후담(夏侯湛)의 죽음을 애도한 <夏侯常侍誄> 또는 안연년(顔延年)이 양찬(陽瓚)의 죽음을 애도한 <陽給事誄> 등의 작품은 유협이 제시한 뇌문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칭양과 애도의 순차적 서술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11) 실제로 당대(唐代) 애도시에 나타난 작가의 슬픔 표출 강도를 분석해본 결과, 애도 유형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형별 슬픔 표출 정도의 차이는 작품의 서사 구조와 감정 시어의 활용 빈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선현<왕족<주변 인물<가족의 순으로 슬픔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 애도시 대부분에서 일관되고 있어 가족에 대한 감정 표출을 의식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려는 문학 장치가 당시 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唐代) 애도시의 애도 유형별 표현 특징과 관련해서는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당대(唐代)에 가족을 위한 애도 시문[12]을 창작한 대표적인 문인은 위응물(韋應物), 원진(元稹), 백거이(白居易)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여러 해에 걸쳐 특정 인물을 반복적으로 애도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위응물은 약 2년에 걸쳐 20여 수에 달하는 애도시를 창작하여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였다.[13] 동시대의 원진은 약 5년에 걸쳐 20여 수에 달하는 애도시와 제문 1편을 창작하여 첫째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819년 첩의 딸이 사망하자 3수의 작품을, 822년 첩의 아들이 사망하자 10수의 연작시를, 829년 두 번째 아내가 사망하자 같은 해에 2수의 작품을 창작하여 애도를 표하였다.[14] 백거이는 810년~815년의 약 5년에 걸쳐 4수의 작품을 창작하여 요절한 딸을 애도하였으며, 백거이 만년인 831년에 요절한 아들을 위한 2수의 애도 시문을 창작하였다.[15]

송대에 가족을 위한 애도 시문을 창작한 대표적인 문인은 구양수(歐陽修)와 매요신(梅堯臣)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게도 특정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시문 창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양수는 8세에 요절한 딸을 위해 1045년에 2수의 애도 작품을 창작하였다.[16] 매요신은 약 26수의 작품을 창작하여 아내를 애도하였으며 다시 2수의 작품을 창작하여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였다.[17]

이상의 창작 사례는 몇몇 대표적인 인물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당송 애도 시문의 가족 서사에 대한 전반적인 창작 실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즉 당시의 가족 구성원이 아내와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대상에 대한 애도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무엇보다 아내를 대상으로 한 창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단순히 문학 주제의 개방화나 창작의 자율성 문제에서 찾으려는 논의는 가족 대상 애도 시문을 문학의 발전 영역으로만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감정구조의 변천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당송 애도 시문의 가족 서사가 탈관습의 실현을 대변한다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

12) 본 논문에서 수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애도 시문은 직계가족인 아내, 자녀를 포함하여 작가의 부모, 형제, 자매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놓인 인물까지로 한정하였다.
13) 위응물의 애도 시문은 陶敏·王友勝,『韋應物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을 참고하였다.
14) 원진의 애도 시문은 冀勤,『元稹集編年箋注』, 中華書局, 2015를 참고하였다.
15) 백거이의 애도 시문은 朱金城,『白居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8을 참고하였다.
16) 구양수의 애도 시문은 洪本健,『歐陽修詩文集校箋』, 上海古籍出版社, 2009를 참고하였다.
17) 매요신의 애도 시문은 朱東潤,『梅堯臣集編年校注』, 源流出版社, 1983을 참고하였다.
18)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시문 창작은 문인들 간의 유대와 친분을 매개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수정,「北宋 哀悼 詩文 小考 - 梅堯臣, 歐陽修, 蘇舜欽을 중심으로,『中國語文論譯叢刊』, 제53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23 참조.

반복적인 시문 창작은 그동안의 가족에 대한 감정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것이 당대(唐代)에 걸쳐 송대까지 지속해서 공유되고 수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당대(唐代)의 위응물과 원진, 송대의 매요신이 남들과는 다른 아내와의 특별한 사연이 존재하여 반복적인 창작을 이루었다기보다, 그러한 가족 서사가 탈관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변화의 추구로서 시대별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정구조에 상응했던 문화적·사회적 실상을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작품 내부적으로는 슬픔을 나타내는 감정 시어 또는 자(字)를 강조하거나 비애의 구절을 여러 차례 배치하여 논리적인 감정 통제의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특징을 나타낸다. 당대(唐代)의 애도 시문이 대체로 기승전결 식의 구조를 따르되 다소 직설적인 어조를 활용하는 글쓰기 방식이 주가 되었다면 송대는 논리적인 창작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감정 서사 구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고 있어 변별점이 존재한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백거이의 <重傷小女子>는 딸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學人言語凭牀行	학인의 말은 평상에 기대어 행해지는데
嫩似花房脆似瓊	어린아인 꽃송이 같아 구슬처럼 연약하네.
纔知恩愛迎三歲	부모의 은혜가 삼 년을 맞이할 때
未辨東西過一生	동서도 분별 못하고 삶이 져버렸네.
汝異下殤應殺禮	너는 어려서 떠나 장례 예법을 따질 수 없는데
吾非上聖詎忘情	나는 성인이 아니니 어찌 그 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傷心自歎鳩巢拙	비둘기 둥지 옹졸하여
長墮春雛養不成	봄 병아리 잘 기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늘 가슴 아파 탄식한다네.[19]

백거이의 딸은 3세의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딸을 잘 키우지 못한 탄식과 비애를 서술하며 그에 대한 애도를 표하였다. 위 작품은 표면상 비교적 완곡한 감정 발현 형태를 보이지만 5-6구를 통해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인다. “장례 예법을 따질 수 없다.”라는 구절은 부모가 자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법도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실제로 요절한 사람은 과거에 출현한 애사(哀辭)라는 특정한 문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20] 작가가 딸을 위한 장례를 치렀는

19)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140.

20) 위진(魏晉)에 출현한 애사(哀辭)는 본래 요절한 사람을 애도하는 문학 장르로 활용되었으나, 훗날 불우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을 애도하는 글로 기능하였다. 당대(唐代) 이후로는 주대(周代)의 애도 문학 양식인 뇌문(誄文)도 애사로 불리면서 보다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애도문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어찌 그 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을 통해 딸을 애도하려는 창작 동기를 분명히 드러낸다. 자녀의 장례와 전통의 관습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던 작가의 고달픈 심경이 행간에 드러난다.

반면 백거이는 아들을 애도한 <哭崔兒>에서는 직설적인 감정 시어를 전면에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망자를 애도한다. 아래의 예문은 원문의 후반부를 발췌한 것이다.

悲腸自斷非因劍	슬픔이 극에 달하니 칼로 베지 않아도 창자 절로 끊기고
啼眼加昏不是塵	눈물 흘리는 눈 흐려진 것 먼지 때문은 아니라네.
懷抱又空天默默	마음속 생각 잊히지 않는데 하늘은 공연히 어둑하니
依前重作鄧攸身	등유(鄧攸)의 신세에 기대어 다시 시를 써보네.[21]

여기서 “창자가 절로 끊긴다.”, “눈물 흘리는 눈 흐려진 것”이라는 두 구절은 자녀의 죽음을 대면한 아버지의 심적 반응으로, 화자가 체감하는 현 상태를 슬픔 시어의 반복 재생을 통해 직접 화법으로 드러낸 것이다. “등유의 신세에 기댄다.”라는 구절은 과거 아우의 자녀를 살리고자 제 아들을 버린 후 더 이상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고사로, 자녀의 죽음을 수용했던 과거 인물을 연상하여 그로부터 교훈과 위로를 얻으려던 시도가 된다.

백거이는 요절한 자신의 네 번째 동생을 애도한 <祭小弟文>에서도 직설 화법을 통해 슬픔을 표출한다. 아래에서 원문 일부를 살펴보자.

> 매번 생각에 이르면 창자는 타는 듯하고 뼈가 시리구나. 마치 칼과 불로 깊은 마음속을 찌르고 태우는 것과 같네. …… 구차하게 살아남아 홀로 괴로워하느니 죽어서 가정이 화합되는 것이 낫겠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라지고 싶으나, 이는 또한 천수를 다하는 것을 이치로 여기는 효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라네.”[22]

오래전 요절한 친동생 백유미(白幼美)를 애도한 것이다. 이 작품은 관습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제문 문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라지고 싶다.”라는 자살 충동을 담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가족에 대한 자율적인 감정 표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회상이 가담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응되는 작가의 문학관과도 관련이 된다.

---

21)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141.

22) “每一念至, 腸熱骨酸. 如以刀火, 刺灼心肝. …… 與其偷生而孤苦, 不若就死而團圓. 欲自決以毁滅, 又傷孝於歸全.” 이수정, 「白居易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 哀悼詩와 哀祭文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8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1, pp.21-22.

실제로 백거이는 <與元九書>에서 애도 주제를 비롯한 감상시(感傷詩)의 핵심은 '수감우(隨感遇)'와 '직(直)', 즉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설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감정의 의도적인 절제를 지양하고 대상의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감정 표현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던 것으로, 이에 기반한 백거이의 가족 대상 애도 시문은 오랜 세월 이념의 통제와 억압으로 언급되지 못했던 가족 서사가 공식화·보편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원진은 <江陵三夢>에서 "놀라고 슬퍼하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니 앉아도 누워도 미칠 것같이 괴롭구나. …… 오늘 밤 눈물 쓸쓸히 떨어지니 절반은 생이별한 느낌이구나.(驚悲忽然寤, 坐卧若狂癡. …… 今宵淚零落, 半爲生別滋.)", <哭女樊>에서 "응당 한 번의 울음으로 창자가 끊어졌을 터, 울음소리 세 차례나 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네.(應是一聲腸斷去, 不容啼到第三聲.)" 등의 구절을 제시하면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송대에는 좀 더 감정 중심적인 가족 서사에 치우친 창작 구조를 보인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구양수의 <백발상녀사작(白髮喪女師作)> 전문을 보자.

吾年未四十	내 나이 마흔도 되지 않았는데
三斷哭子腸	자식 때문에 우느라 세 차례 창자가 끊어졌네.
一割痛莫忍	일 할의 고통도 참지 못했는데
屢痛誰能當	연이은 고통 그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
割腸痛連心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마음에까지 이어져
心碎骨亦傷	마음 부서지자 뼈도 상하게 되었네.
出我心骨血	내 마음과 뼈에서 흘러나온 피
灑爲淸淚行	눈물로 흩뿌려지며 흐르네.
淚多血已竭	눈물 많아 피도 이미 마르고
毛膚冷無光	머리와 피부는 창백하여 광이 없네.
自然須與鬢	자연히 수염과 귀밑머리는
未老先蒼蒼	늙지도 않았는데 먼저 희끗희끗해졌네.

위 작품은 딸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전체 작품 중 절반 이상에서 슬픔을 형상한 시어 또는 자(字)가 제시되고 있다. "哭子腸", " 割腸", "心碎", "心骨血", "淸淚", "血已竭" 등의 시어는 자녀를 상실한 애도 주체의 애상(哀傷)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정해진 글쓰기 규칙이나 논리적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 가족의 죽음을 대면할 때의 실제적인 감정 반응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매요신의 <淚>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으로 상기한 구양수의 작품과 유사한

감정 표출 방식을 보인다. 아래는 작품 전문이다.

平生眼中血	평생토록 흘릴 피눈물
日夜自涓涓	밤낮으로 절로 흘러나온다네.
瀉出愁腸苦	근심과 슬픔의 괴로움에서 흘러나온 것은
深於浸沸泉	끓는 샘에 잠기는 것보다 깊다네.
紅顔將洗盡	홍안은 막 다 씻겨 나가고
白髮亦根連	백발은 여전히 뿌리가 이어져 있네.
此恨古皆有	이러한 한은 예로부터 있었는데
不須愚與賢	어리석은 이와 어진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네.

시제에서부터 이미 '눈물'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작품 절반 이상에서 눈물에 대응되는 신체적 반응이 제시된다. 마찬가지로 "眼中血", "涓涓" 등의 시어가 슬픔을 가중하고 있으며 첫 구절부터 "피눈물"을 흘리는 자화상을 묘사함으로써 기승전결의 논리적 구성에서 벗어나려는 감성 중심의 서사 형태를 내비친다.

그 밖에도 매요신은 <悼亡>三首에서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몸도 마음도 모두 닳아 없어져 버렸네.(世間無最苦, 精爽此銷磨.)", <書哀>에서 "두 눈은 비록 마르지 않았으나 내 마음은 곧 죽으려 하네.(兩眼雖未枯, 片心將欲死.)", <悲書>에서 "슬픈 근심은 칼보다 빨리 찾아오고 속에서는 간과 창자 끊겨 애통하네.(悲愁快於刀, 內割肝腸痛.)" 등의 구절로써 가족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특징을 지속해서 내비친다.

실제로 자녀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에서 강한 슬픔이 표출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특징이라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당대(唐代) 이전 자녀를 애도한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조식의 <金瓤哀辭)>와 <行女哀辭> 등 과거의 슬픔 발현 양상과 시어의 활용 실태를 비교해볼 때 분명한 차이를 보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조식은 자녀의 요절로 유발된 충격을 직설적인 어조나 시어를 활용하지 않고 <金瓤哀辭>에서 "하늘과 땅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데, 인생은 얼마나 되는가? 가는데 정해진 것 없으니, 너에게 갈 기약 있겠지.(天長地久, 人生幾時? 先後無覺, 從爾有期.)라 하였으며, <行女哀辭>에서는 "떠나간 이를 좇을 수 없는 것 알고 있어 마음은 가벼이 흐르다 정도를 잃어버리네.(感逝者之不追, 情忽忽而失度.)"라 하며 긴 호흡 속에 개인의 슬픔을 담담한 어조로 서술한다.

그러한 점에서 당송의 애도 시문은 가족에 대한 자율적인 감정 서사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몇몇 사례를 통해 당송 애도 시문에 나타난 가족 서사는 당대에서 송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애도 주체의 감정 형상이 내용의 중심이 되는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슬픔 서사 구도와 표출 정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기존과는 다른 진전된 가족 서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이가 당시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대변한다면 논리적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감정 대응 방식은 곧 당대를 거쳐 송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호출이 점차 활성화되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의 위상도 어느 정도 제고되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3. 과거지향적 연민과 탄식: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대응

고대 중국의 가족 서사는 『논어(論語)』의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父父, 子子.)"라는 언급 또는 서한 유향(劉向)이 절개를 지킨 여성들의 일화를 모은 『열녀전(列女傳)』 등이 증명하듯 대체로 역할론적 또는 교훈적 측면에서의 논의에 치우쳐 있었다. 가족은 공적인 영역과 완벽히 분리된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공개적인 언급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고래로 수없이 많은 창작물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일상을 노래하거나 가족 구성원 간의 추억이 중심이 된 글쓰기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가족 서사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문인들의 감정구조를 보여준다.

사실 과거의 사건을 들추어 현재의 처지와 대조하는 문학 기법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전하는 작품들 다수에서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이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당대(唐代) 애도 시문의 대표적인 문학 특징[23]으로 제기되더라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문 창작에 있어서만큼 줄곧 보편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족이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오랜 세월 비주류적인 단계에 놓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기득권적 위치에 놓인 창작물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품에 제시된 과거의 사건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다루는 경우 가족은 더더욱 주류의 반열에 영입될 수 없었다. 여기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현전하는 작품 자체가 많지 않다는 물리적 여건도 간과할 수 없겠으나, 이 문제를 고대

23) 당대(唐代) 애도시의 문학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즉 당시 문인들의 감정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 착안하여 본다면 재해석해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당송 애도 시문에서 가족은 죽음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전제되면서 온전한 가족의 형태를 유지했던 과거 일상으로의 회귀 열망을 지속해서 드러내는 한편 시간의 비가역성(非可逆性)에 따른 연민과 탄식을 강하게 보인다. 단순히 특정 사물이나 경물의 언급을 통해 일시적으로 망자의 연상을 유도하는 기존 작품과는 달리[24] 가족 구성원과의 경험 및 추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상실로 인한 슬픔을 보다 직접적으로 공개한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애도 시문의 문학적 진보를 의미하면서 가족 간의 사생활 공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했던 당시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보여준다. 아래에서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의 예문은 위응물의 <往富平傷懷> 전반부를 발췌한 것이다.

晨起淩嚴霜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운 서리 내리는데
慟哭臨素帷	통곡하며 하얀 휘장에 임하였네.
駕言百里途	백 리 길에 말을 전하는데
惻愴復何爲	너무나도 슬프니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昨者仕公府	예전에는 관사에서 벼슬하느라
屬城常載馳	속현의 성에서 분주했었네.
出門無所憂	문 나서면 걱정할 일 없었고
返室亦熙熙	집으로 돌아오면 화기애애했었지.
今者掩筠扉	지금은 사립문 닫혀있고
但聞童稚悲	어린아이 슬프게 우는 소리만 들린다네.[25]

예시한 작품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시제의 “부평(富平)”은 경조부(京兆府) 속현(屬縣)으로 지금의 협서(陝西)에 속한다. 위응물은 경조부 공조참군(功曹參軍)으로 있을 때 부평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때 아내가 죽었다고 전해진다.[26] 1-4구는 아내의 죽음을 대면한 작가의 반응이며 5-8구는 과거 시점에 관한 서술이다. 관직으로 인해 분주한 일상을 영위하였으나 가정을 잘 꾸렸던 아내가 있었기에 걱정 없이 집을 나섰던 평범했던 시간이 “집으로 돌아오면 화기애애했었지.”라는 구절로 제시된다. 유품을 언급하며 망자의 빈자리를 강조했던 기존의 물시인비(物是人非) 중심의 가족 서사와 달리, 아내와 공유했던 일상의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내용의

24)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서진(西晉) 반악(潘岳)의 <悼亡詩>三首와 남조(南朝) 강엄(江淹)의 <悼室人>十首를 들 수 있다.
25)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p.171-172.
26) 陶敏·王友勝, 『韋應物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p.396.

신빙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슬픔의 타당성을 내비친다.

다시 위응물의 <出還>을 보자.

昔出喜還家	예전에는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는 것이 즐거웠으나
今還獨傷意	지금은 돌아오면 마음이 상하네.
入室掩無光	방에 들어서면 빛도 없이 어두컴컴하니
銜哀寫虛位	아내의 위패에 내 슬픔을 쏟아낸다.
淒淒動幽幔	어둠 속 휘장은 슬픈 듯 흔들리고
寂寂驚寒吹	적막한 곳에 찬 바람 불어와 흠칫 놀라네.
幼女復何知	어린 딸은 또 무얼 알겠는가.
時來庭下戲	언제나 마당에서 뛰놀고 있네.
咨嗟日復老	아아, 나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니
錯莫身如寄	정신이 희미하고 혼잡하여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만 같구나.
家人勸我餐	집안 식구 내게 밥 먹으라 권하는데
對案空垂淚	식탁을 대하니 공연히 눈물만 흐르네.[27]

위 작품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1-2구는 일상을 회상한 것으로 <往富平傷懷>의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3-6구는 사물로 인해 연상된 아내에 대한 슬픔을 서술한 부분이며 7-10구는 망자의 부재로 무력해진 화자의 현 상태를 탄식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과거 아내와 공유했던 공간이 제시된다. "식탁을 대하니 공연히 눈물만 흐른다."라는 작가의 감정 반응은 식사를 함께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며, 그 경험은 망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는 재현될 수 없음을 알기에 눈물만 흘리는 모습으로 대응된다. 유품의 제시와 더불어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과거를 재연시킴으로써 현 처지에 대한 연민과 탄식의 반응이 이루어진다.

동시대 원진의 작품도 과거의 한 사건이 자기연민과 탄식의 반응으로 재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遣悲懷>三首 중 其一이다.

謝公最小偏憐女	사공의 막내딸 부모님 사랑 독차지했었는데
嫁與黔婁百事乖	검루에게 시집온 뒤로 만사가 어긋났네.
顧我無衣搜畫篋	내게 옷이 없으면 상자를 뒤져 찾아주었고
泥他沽酒拔金釵	술 사 달라 조르면 금비녀를 뽑아주었네.
野蔬充膳甘長藿	채소로 배 채우고 콩잎도 달게 여기며
落葉添薪仰古槐	낙엽으로 땔감 삼고자 홰나무를 바라보았네.

27)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p.172-173.

今日俸錢過十萬　지금은 봉급이 십만 금이 넘는데
與君營奠復營齋　그대를 위해 제사 지내고 재나 올리는구나.[28]

작품 절반을 할애하여 과거의 경험을 나열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아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자책의 심경을 표현하였으며, 3-6구에서 과거의 일상을 재현한다. 그리고 미련에서 망자가 부재한 현 처지에 대해 탄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상자를 뒤져” 옷을 찾아주고 “금비녀를 뽑아” 술로 바꿔왔던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은 “술 사 달라 조르는” 남편의 철없는 행동과 동시에 재현되고 있으며 거친 반찬을 먹으면서도 생활비 절감을 위해 “홰나무를 바라봤던” 생전의 한 장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물론 망자에 관한 서술이 지나치게 미화된 것 같다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기존 작품과 비교할 때 서술 폭이 개인의 일화로 확장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백거이는 <念金鑾子>二首에서도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과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통해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래는 원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一朝舍我去　하루아침에 날 집에 두고 떠나버려
魂影无处所　혼 그림자 그 어디에도 안보이네.
况念夭札时　하물며 요절한 때를 떠올리나니
呕哑初学语　막 말을 배워 재잘거릴 때였지.
始知骨肉爱　비로소 골육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乃是忧悲聚　곧 근심과 슬픔이 합쳐졌네.
唯思未有前　오직 아이가 없었을 때를 상각하며
以理遣伤苦　삶의 이치 상기하여 가슴 아픈 괴로움 떨쳐보려 하네.
忘怀日已久　가슴에 묻은 날 이미 오래 흘러
三度移寒暑　세 번이나 추위와 더위가 바뀌었네.

백거이의 딸은 4세에 요절했다고 전해진다. 백거이는 딸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총 4수 창작했는데,[29] 810년 딸의 생일을 기념하고자 지은 <金鑾子晬日>을 제외하고는 모두 딸 사망 후에 지은 작품이다. 예시한 작품은 813년에 지어진 것으로 자녀가 떠난 지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 창작되었다. 여기서는 “막 말을 배워 재잘거렸던” 딸 아이의 모습이 재현된다.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시점에 요절하게 된 충격은 “비로소 골육의 사랑을 알게 된” 작가의 탄식을

28) 이수정, 『唐代 哀悼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p.135-136.
29) 백거이가 딸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金鑾子晬日>, <念金鑾子>二首를 포함하여 <病中哭金鑾子>, <重傷小女子>의 총 4수가 전해진다.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 이 작품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金鑾子晬日>에서 보여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선행되기 때문이다. 백거이는 이 작품에서 “요절하는 아픔이 없다면 시집을 가게 될 것이니, 산으로 돌아갈 내 계획 응당 15년은 지체되겠지.(若無夭折患, 則有婚嫁牽. 使我歸山計, 應遲十五年.)”라 하며 딸을 위해 기꺼이 가정에 남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사후에도 이어져 여러 차례 애도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대의 구양수도 <哭女師>에서 과거지향적 서사 구조를 보이며 딸을 애도한다. 아래는 작품의 전문이다.

> 해 지고 집 들어서면 날 맞이하며 웃었고 아침에 집 나가면 내 옷을 잡아당겼지. 내 품에서 걷다가 내달리며 장난치느라 아침이 저녁이 되었음을 깨닫지 못했고 계절의 흐름도 알지 못했네. 갑자기 보이지 않아 하루에 천번 만번 떠올리는데 하루를 넘기기 어려우니 이 얼마나 긴 시간이며 밤에 잠들지 못하니 이 얼마나 더디게 흘러가는가! 해 지고 집 들어서면 무엇을 바랄 수 있고 아침에 집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흐릿하게 딸아이가 있는 것 같으나 희미하여 잡기 어려운데, 두 갈래머리 늘어뜨리며 눈썹이 예뻤었네. 술이 깨서 잠들면 볼 수 없고 취하여 꿈꿀 때만 (딸을) 쫓을 수 있다네. 8년은 며칠도 안 되는 기간으로 100살을 기약하기 어렵나니, 네게 잠깐의 사랑을 주었으나 나는 평생의 슬픔 안게 되었구나.[30]

공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고, 함께 놀고 싶어 “옷을 잡아당기며” 온종일 장난치는 딸아이와 시간을 보냈던 과거의 활기찬 모습이 작품 전면에 제시되고 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녀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황망함을 나타내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작가의 일상생활을 파괴함으로써 불면증과 술 마시는 행위로 귀결된다. 위 작품은 산문이라는 문체적 특성에 기반하여 비교적 긴 호흡 속에 과거의 사건이 상세하게 나열된다. 무엇보다 죽은 딸과 작가가 함께 공유했던 경험이 슬픔의 전제이자 내용의 핵심을 담당한 점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 서사에서 실제 경험이 가족 서사의 전형으로 영입되기 시작한 변화의 일면을 방증한다.

이에 호응하듯 매요신은 구양수의 딸을 애도한 <開封古城阻淺聞永叔喪女>에서 부녀지간의 깊은 사랑을 과거 일상의 재현을 통해 제시한다.

---

30) “暮入門兮迎我笑, 朝出門兮牽我衣. 戲我懷兮走而馳, 旦不覺夜兮不知四時. 忽然不見兮一日千思, 日難度兮何長, 夜不寐兮何遲! 暮入門兮何望, 朝出門兮何之? 怳疑在兮杳難追, 髣兩毛兮秀雙眉. 不可見兮如酒醒睡覺, 追惟夢醉之時. 八年幾日兮百歲難期, 於汝有頃刻之愛兮, 使我有終身之悲.”

去年我喪子與妻　작년 나의 아들과 아내가 죽었는데
君聞我悲嘗俛眉　그대 내 슬픔 전해 들으며 눈썹 낮게 드리웠었지.
今年我聞若喪女　올해 그대 딸이 세상 떠났다는 소식 들어
野岸孤坐還增思　언덕에 홀로 앉으니 생각이 많아졌네.
思君平昔憐此女　그대는 평소 딸을 어여삐 여겼는데
戲弄膝下無不宜　품 안에서 장난치며 화목했었지.
昨來稍長應慧黠　지난날이 더 길었다면 응당 슬기롭고 민첩하게 자랐을 것이고,
想能學母粉黛施　모친을 배워 아름답게 화장도 했겠지.
幾多恩愛付涕淚　얼마나 많은 사랑을 눈물로 내야 하는가.
灑作秋雨隨風吹　가을비에 흩날려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날아갔네.
風吹北來霑我袂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와 내 소매 적시는데
哀樂相恤唯己知　슬픔과 즐거움 서로 도와야 하는 것 나만 안다네.
自古壽夭不可詰　예로부터 장수와 단명은 물을 수 없어
天高杳杳誰主之　하늘 높고 아득한 것 누가 주관하겠는가.
以道爲任自可遣　도를 소임으로 하여 자신을 보낼 수는 있으나
目前況有寧馨兒　지금 어찌 꽃다운 아이까지 있단 말인가.

매요신과 구양수는 평소 절친했던 사이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또한 아내와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어 동병상련의 심경으로 구양수를 위로한다.[31] "그대는 평소 딸을 어여삐 여겼는데 품 안에서 장난치며 화목했었지."라는 구절은 <哭女師>에 언급된 것처럼 거리감 없었던 부녀 사이를 재현한 것이며 작가가 바라본 과거의 한 시점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날이 더 길었더라면 슬기롭고 민첩하게 자랐을 것이고, 모친을 배워 아름답게 화장도 했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가정은 딸과의 추억이 많은 애도 주체인 구양수의 과거 사실에 기반한다. 이러한 미래의 가정은 시간의 비가역성 앞에서 도리어 슬픔을 가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딸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앞날에 대한 긍정적 상상은 가족을 상실한 구양수를 애도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예시들은 가족 애도에 대한 서사가 자유롭게 공유되었던 사실을 증명하며 비록 과거의 재현이기는 하지만 가족 간의 사생활 공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했던 당시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실증하는 사례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1) 구양수 또한 매요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南陽縣君謝氏墓誌銘>을 창작하였다.

4. 습관적 무기력과 좌절: 정서적 불안과 정체된 삶

당송 애도 시문의 가족 서사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무기력과 그로 인한 좌절감이 가족 상실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삶의 의욕이 저하된 정체된 삶을 대변하는 형태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죽음을 강한 슬픔의 표출이나 과거 행적의 미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단계에서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대면한 애도 주체의 변화된 신체적 반응 및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형용하는 방식을 통해 가족을 노출한다. 여기서는 망자의 삶을 총합하여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려는 의도는 약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자 일상을 영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족의 상실은 곧 일상의 균열이자 상실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 것이다.

비록 당송 애도 시문은 죽음 이후의 사건들의 재현이라는 제한된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속에 투영된 확장된 애도 주체의 정서 반응은 변화된 가족 서사와 감정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고대 문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한 대응은 여러 해에 걸친 반복적인 작품 창작이라는 습관적 성질을 내비치며 슬픔 극복의 열망보다는 정서적 불안에 따른 무기력과 좌절로 귀결되는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위응물의 <除日>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思懷耿如昨	그리워하는 마음 어제와도 같은데
季月已云暮	12월의 해는 저물어버리네.
忽驚年復新	한 해가 새로워지니 홀연 놀라고
獨恨人成故	그대 고인이 된 것 홀로 탄식하네.
冰池始泮綠	얼음 못 녹아 물가는 푸르러지기 시작했는데
梅援還飄素	매화 나뭇가지에는 아직 눈이 쌓여있네.
淑景方轉延	아름다운 풍경 계속 이어질 것이니
朝朝自難度	날마다 홀로 견디기 어렵겠구나.

섣달그믐날 홀로 한해를 지새우게 된 고독감을 표출하고 있다. 매년 함께 연말을 보냈던 과거와 상처(喪妻)하게 된 현재의 상태는 “그대 고인이 된 것을 홀로 탄식하

네."라는 구절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봄 정경에 대한 근심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부가 함께 봄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은 "날마다 홀로 견디기 어렵다."라는 무기력과 좌절로 귀결된다.

'죽음의 인식과 수용 - 슬픔 표출 - 좌절과 무기력'의 순서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의 극복 의지보다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잠식되어버리는 정체된 양상을 나타낸다. 좌절과 무기력이 가족 상실로 인한 작가의 감정 반응일 때, 이는 비단 소수의 몇몇 작품으로 특정되지 않으며 동일 인물에 대한 일련의 창작물 속에서 반복적으로 습관화된다. 그에 따라 위응물 역시 <제야> 외에도 아내를 애도한 <出還>, <冬夜>, <端居感懷> 등 여러 작품 속에서 유사한 가족 서사 구조를 보이며 무기력과 좌절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다.

원진 또한 가족의 죽음을 여러 차례 애도하면서 그로 인해 야기된 부정적 감정들을 습관적으로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먼저 <遣悲懷>三首 중 其三의 원문을 살펴보자.

閑坐悲君亦自悲	한가히 앉아 그대를 슬퍼하고 나 자신도 슬퍼하나니
百年都是幾多時	인생 백 년 길어봐야 얼마나 되리?
鄧攸無子尋知命	등유는 아들이 없자 이내 운명임을 알았는데
潘岳悼亡猶費詞	반악은 아내가 죽은 뒤에 오히려 말만 낭비했으리.
同穴窅冥何所望	한 구덩이에 묻히는 건 까마득하여 바랄 게 없고
他生緣會更難期	내세에 다시 만나는 건 더욱 기대하기 어려우니
喩將終夜長開眼	다만 밤이 다하도록 길이 눈을 감지 않아
報答平生未展眉	평생 얼굴 펴본 적 없는 그대에게 보답하리.[32]

첫머리에서 "그대를 슬퍼하고 나 자신도 슬퍼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아내의 죽음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된 한 인간에 대한 연민에 그치지 않고 홀로 남게 된 자기 자신에게까지 미쳤음을 언급하면서 가족 상실이 주는 파급력을 재차 강조한다. "등유"는 동생의 아들을 살리고자 제 자식을 버리고 끝내 아들을 다시 얻지 못했다는 고사의 당사자이며 "반악"은 <悼亡詩>三首를 지어 죽은 아내를 애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등유는 자식이 없는 것을 "운명으로 알고", 반악은 "말만 낭비했다."라는 구절은 가족의 죽음을 수용했던 등유와 달리 장편의 시를 통해 아내를 애도하며 고독에 파묻혔던 반악의 창작 행위가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 또한 반악과 같이 "말만 낭비하는" 창작 행위에 잠식되어버린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동혈(同

32) 이수정, 『唐代 哀悼詩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217.

穴)의 소망과 내세의 만남도 부정한 채 밤새도록 “눈을 감지 않고” 아내만을 떠올린다는 결말은 가족 상실로 인한 일상의 좌절과 무력감을 직선적으로 보여준다.

원진은 자신의 무기력과 좌절감을 자녀를 대면한 자화상의 재현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은 <除夜>이다.

憶昔歲除夜	지난해 제야를 떠올려보니
見君花燭前	그대 화촉 앞에 있는 것 보았네.
今宵祝文上	오늘 밤 축문에서
重疊敘新年	거듭 신년을 서술하였네.
閑處低聲哭	집에서 조용히 낮은 소리로 울다가
空堂背月眠	텅 빈 방에서 달을 등지고 잠들었네.
傷心小男女	어린아이들 보면 가슴 아픈데
撩亂火堆邊	이리저리 불더미 가를 돌아다니고 있네.[33]

모친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홀로 섣달그믐을 보내게 된 고독한 작가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가장으로서 자녀에게 슬픔을 감추려던 부친은 “집에서 조용히 낮은 소리로” 남몰래 눈물 흘리다 처량하게 잠든다. 그리고 아내 없이 홀로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심적 부담은 “이리저리 불더미 가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재현된다. 작중 작가는 자녀를 슬픔에 동참시키는 대신 슬픔의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앞날에 대한 깊은 근심과 좌절을 연상시킨 것이다.

실제로 원진은 아내의 죽음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일례로 <江陵三夢>은 꿈속에서 죽은 아내와 대화를 나눈 일화를 서술한 것으로, 작품에서는 “당부하며 말하길(囑云)”이라는 시어를 기점으로 자녀를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아내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그 밖에도 원진은 <六年春遣懷>八首에서 “옥 빗 꽂 모양 장식은 아교가 떨어져 나가고, 바람만 종일토록 대모 장식 풍경에 불어오네.(玉梳鈿朶香膠解, 尽日风吹玳瑁筝.)”, “술에서 깨어나 옆 사람이 우는 것 의아했는데, 취했을 때 시시각각 당신이 어딨는지 물었다고 하네.(怪來醒後傍人泣, 醉裏時時錯問君.)”, “세상일에 무심하다 한식날 되었는데, 이 몸은 어린 딸 데리고 휘장 앞에서 울고 있네.(百事無心值寒食, 身將稚女帳前啼.)”, “병든 몸은 휘장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계단 향하여 햇볕 등지고 잠만 자네.(病身一到總帷下, 還向臨階背日眠.)” 등 유사한 성격의 구절을 제시하며 상처(喪

33) 이수정, 『唐代 哀悼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237.

妻)로 인한 무기력과 좌절감을 습관적으로 내비친다. 자녀의 죽음을 애도한 <哭子> 十首 에서도 깊은 슬픔에 잠식되어버린 자화상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34]

이러한 문인들의 감정구조는 송대에도 지속되는 형태를 보인다. 매요신의 <懷悲>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이다.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 일상의 균열을 의미하는 점에서 당대(唐代)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보인다. 아래에서 원문을 살펴보자.

自爾歸我家	나는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未嘗厭貧窶	가난을 싫어한 적이 없었네.
夜縫每至子	밤이 오면 매번 자식에게 가보고
朝飯輒過午	아침이 와서 밥 차려주고 나면 오후가 된다네.
十日九食齏	열흘 중 아홉 일은 나물을 먹고
一日儻有脯	적어도 하루는 말린 고기를 먹었네.
東西十八年	이곳저곳 18년을 지내면서
相與同甘苦	함께 좋은 일 힘든 일 다 겪었지.
本期百歲恩	본래 백년해로하자 약속했는데
豈料一夕去	하룻밤 만에 떠나실 줄 어찌 알았겠는가.
尚念臨終時	아직도 임종 때를 떠올리나니
拊我不能語	나 자신을 어루만질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此身今雖存	내 육신 지금 아직 있지만
竟當共爲土	응당 함께 흙이 될 것이라네.

여기서 “가난”은 과거의 상징이자 생전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을 의미한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가난을 싫어한 적이 없었다.”라는 구절은 궁핍한 생활을 영위했더라도 아내가 생존했던 과거 일상으로 회귀하고픈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3-6구는 양육을 온전히 책임지며 가사에 충실한 현 상황에 대한 묘사이며, 7-10구는 근 20년 함께 생활하며 지냈던 결혼생활에 대한 회상이다. 11-12구에서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충격을 고스란히 나타낸 부분으로 가족의 죽음을 직면한 애도 주체의 반응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여기서도 죽은 아내에 대한 진혼(鎭魂)의 측면을 부각하거나 과거를 미화하는 대신 “응당 함께 흙이 될 것이라네.”라는 구절로써 고독한 삶을 영위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길 희망하는 좌절로 귀결된다.

다시 딸의 죽음을 애도한 매요신의 <小女稱稱塼銘>[35]을 보자. 여기서도 죽음 앞

34) 그 외에도 <醉醒>, <初寒夜寄盧子蒙>, <合衣寢>, <張舊蚊幬> 등에서 유사한 특징이 발현되어 있다.

35) 시제가 <戊子三月二十一日殤小女稱稱三首>其一로 된 판본도 있다.

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처절한 심경이 잘 반영되어 있다.

生汝父母喜	살아서는 부모의 기쁨이었는데
死汝父母傷	죽어서는 부모의 아픔이 되었구나.
我行豈有虧	나에게 어찌 이런 시련이 있고
汝命何不長	너의 명줄은 어찌 이리도 짧단 말인가.
鴉雛春滿窠	까마귀와 메추리는 봄 되어 둥지 가득하고
蜂子夏滿房	벌은 벌집을 가득 채웠네.
毒螫與惡噪	독벌레와 해충은
所生遂飛揚	태어나자마자 날아다닌다네.
理固不可詰	하늘의 이치 물을 수 없어
泣淚向蒼蒼	푸른 하늘 향해 눈물 줄줄 흘리네.

"부모의 기쁨"이었던 딸아이의 죽음은 한순간에 "부모의 아픔"으로 전환된다. 딸의 죽음은 계절 순환에 따른 봄날의 생기와 대비된다. 새 둥지에 알이 가득한 장면과 "벌집"을 가득 채운 벌들의 모습은 곧 있을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면서 자식을 잃은 암울한 현재의 처지를 깊은 좌절로 이끈다. "독벌레와 해충"이 "태어나자마자 날아다닌다."라는 구절은 하찮은 미물이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녔음을 말한 것으로, 장성하지 못한 채 요절해버린 딸에 대한 슬픔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부모의 처절한 심경을 반영한다. 이는 결국 하늘에 대한 원망과 눈물만 지속해서 흘리는 정서적 반응으로 귀결되면서 가족의 죽음에 직면한 한 인간의 무력감과 좌절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매요신은 <悼亡>三首, <秋日舟中有感>, <書哀>, <悼子> 등의 작품에서도 가족 상실이 초래한 정서적 불안 반응을 습관적 무기력과 좌절로 귀결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당송 애도 시문의 가족 서사는 가족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무기력과 좌절감을 습관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의 균열에 따른 정서적 불안이 전제되면서 슬픔의 극복 의지나 망인에 대한 진혼을 선행하기보다 일정 기간에 걸쳐 습관화된 좌절감에 잠식되어 가족을 상실한 시공간에 정체된 채 삶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실제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식적인 문학 장치로 추정되지만,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가족은 일상을 지속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해체는 곧 일상의 균열과 대등한 것임을 공인하는 실증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가족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집단 공동체로 무수한 생성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가족 개념은 시대마다 달리 해석되어왔지만, 혈연이나 공공 유대에 기반한 사적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관된다. 고대 중국을 비롯한 동양 사회에서는 유교 이념에 기반한 가족 개개의 역할 분담이 강조되면서 불언내(不言內)와 같은 폐쇄적인 전통 가족 통념이 존재하게 된다. 가족의 공식적인 언급은 유가 이념의 선양을 위시한 역할론적 측면에 집중될 뿐 대중에게 공유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가족은 글쓰기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따라서 현전하는 자료 중 가족 간의 일화를 담은 기록이나 가족 인식에 대한 사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이 애도 시문에 집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따른 자료적 한계에 바탕을 두며 이를 극복해보려는 일환에 있다. 쉽게 말해 애도의 글쓰기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가족 서사를 보장한다면 고대 문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내지 변화된 감정구조를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획된 것이다. 그 결과 이는 일차적으로 애도 문학 변천의 한 단면을 탐색하는 작업이면서 그보다도 오랜 세월 주목받지 못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즉 당시 공동체가 소유했던 감정구조의 실태와 변화의 흐름을 구축하는 실마리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에 동조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른 당송 애도 시문에 나타난 가족 서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감정 통제의 결여이다. 억압적·제한적이던 기존의 가족 서사에서 벗어나 애도 주체의 감정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자율적인 감정 표출의 장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둘째,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지향적인 서사 구조를 보인다. 망자와 공유했던 개인적인 경험과 일화가 과거의 한 부분으로 제시되면서 가족의 일상 한 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었다. 셋째, 습관적인 무기력과 좌절의 표출이다. 가족의 상실이 일상의 균열과 대응하면서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은 무기력과 좌절에 잠식되어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상 도출한 내용을 통해 고대 중국인들의 가족 서사는 당송에 이르러 탈관습의 성질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애도 시문은 죽음이 전제되는 면에서 그 고유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글쓰기 활동을 통해 가족에 대한 언급을 공식화한 시도는 가족 구성원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나름의 방식을 통해 공개

하려던 당시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기옥, 『文心雕龍』,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레이먼드 윌리엄즈, 설준규·송승철 옮김, 『문화사회학』, 까치, 1984.
_____, 성은애 옮김,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陶　敏·王友勝, 『韋應物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逯钦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83.
洪本健, 『歐陽修詩文集校箋』, 上海古籍出版社, 2009.
冀　勤, 『元稹集編年箋注』, 中華書局, 2015.
朱金城, 『白居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8.
朱東潤, 『梅堯臣集編年校注』, 源流出版社, 1983.

<논문>
김용찬, 「사설시조 속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 - 고부(姑婦), 처첩(妻妾)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박은진, 「'감정구조' 중심의 문학사 교육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제4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이수정, 「白居易 哀悼詩 小考 - '隨感遇'와 '直'에 따른 直說的인 말하기 방식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제76집, 중국어문학회, 2021.
_____, 「白居易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애도의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 哀悼詩와 哀祭文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8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1.
_____, 『唐代 哀悼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_____, 「北宋 哀悼 詩文 小考 - 梅堯臣, 歐陽修, 蘇舜欽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譯叢刊』, 제53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23.
주기평, 「杜甫 示兒詩 研究 - 두보 자식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82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15.
_____, 「唐宋 示兒詩에 나타난 중국 시인들의 자식교육」, 『중국어문학』, 제70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15.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家人叙事, 情感结构, 唐宋, 哀悼, 死亡, 詩文
	영문	Family configuration, Stuructral of feeling, Tang Song dynasty, Mourning, Death, Poetry and prose

A Study on the Family Configuration and the Structure of Altered Feeling in Ancient China
: Focus on Family Mourning in Tang Song Dynasty's Poetry and Prose

Lee Soo-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configuration and the structure of altered feeling in ancient China, analyzing the family mourning shown in Tang Song dynasty's poetry and prose. It is not only an analysis on the mourning-related literature works, but also is a way for understanding the family configuration in ancient China.

The writing method concerning Tang Song dynasty's mourning work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the lack of emotion control, which means liberation from oppression of the past. Departing from the past customs, those works pursue free emotional expression on their family. The second phase is to show pity and lamentation feeling about the past things. The experiences shared with the deceased were presented in detail as essential part of the past. The third phase is the expression of habitual lethargy and frustration. Most of them regarded the passing-away of family members as severe crack in their daily life. Thus they did not try to overcome their sadness intentionally.

This kind of research results concerning the mourning poetry and prose of the Tang Song Dynasty reflects the structure of altered feeling in ancient china. Accordingly, it gives a valuable chance to re-evaluate Tang Song Dynasty's mourning works.

저 자	이수정 / 李修禎 / Lee Soo-Jeo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08.	심 사 일	2023.08.31.	게재확정일	2023.09.13.